

중학생 성교육 이야기

바보 같은 질문이란 없다

올바른 성문화는 올바른 성교육이 낳는다.

좋은 성교육이란 교육대상자와 눈높이를 맞추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성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겪은 이야기를 소개하여 진정 필요한 성교육이 무엇인지 찾아본다.



이혜란

도곡중학교 양호교사, 성교육 강사, <함께 풀어가는 성 이야기> 중학교편 지도인과 CD 심의위원, 창의적 재량 성교육 운영

교육부 지정 성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은 무엇일까 고민했다. 학생들이 알고 싶은 것을 모두 정리하면 결국 우리 어른들이 알려주고 싶은 것과 같아지는 것 같다. 단 정확한 지식으로, 학생들 눈높이에 맞추어 깨어있고 이해하고 바른 가치관으로 바뀌는 수업을 하고자 다양한 수업기법을 배우고 사용하니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여 생각들을 나눌 수 있었다.

학교 성교육은 교실에서 면대면 수업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가 크다. 재량시간이 있어 양호교사가 교실 수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다. 성교육 수업에서는 무엇이든지 바보 같은 질문은 없다는 것과 개개인의 생각의 다름을 차별하지 않고 차이로 인식하자는 것을 강조하고 수업을 시작한다.

첫째시간에는 우선 보건교육 중 안전교육으로 교내안전수칙과 보건실이용법에 대하여 수업한다. 둘째시간에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성과 배울 성교육의 범위를 벤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다. 셋째시간에는 태아와 첫돌까지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부모님과 함께 한 활동지를 가지고 친구들과 태몽, 태교, 출생한 곳, 출생시의 몸무게, 돌잔치 때 내가 잡은 것, 축하해주신 분, 덕담들을 나누어 적고 조별 발표를 하

게 하면서 임신과 출산을 설명하면 이해가 빠른 것 같다. 임신기간을 물으면 10달이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낳자를 물으면 300일이라고 많이 대답한다.

그래서 나의 결혼기념일과 큰딸아이의 생년월일을 가지고 설명하면 보통은 잘 듣고 임신기간은 1달을 4주로 친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그날은 창가 둘째 줄의 남학생이 “선생님, 저는 부모님 결혼기념일과 제 생일이 5개월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하는 것이 아닌가! 이른바 속도위반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하는지 난감했다.

조금 전 부모님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여 양가 축복을 받고 결혼을 했다고 했는데... 잠깐사이에 지혜를 찾아 “OO부모님은 OO을 사랑해서 낳으시려고 서두르셨구나...” 하고 얼버무리고 정상분만과 제왕절개 출산 시 산모의 통증도 심하지만 아기는 산모보다 10배정도 힘들게 태어났으며 이 세상에 나온 것은 다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라고 소중한 존재라며 수업을 정리했다.

우리 학생들은 말 한마디에 민감하고 말없는 행동에는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수업에는 성폭력의 정의와 유형,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알아보기, 성폭력의



많은 학생들이 어두운 성을 알기 전에 밝고 아름다운 성을 먼저 바르게 알려주어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어 삶의 질을 높이게 되었으면 한다.

예방을 배워 학생들이 성폭력과 성희롱과 성추행을 구별할 수 있고 성폭력은 폭력 중 가장 나쁜 폭력이며 피해자는 아무 잘못도 없음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1학년 한 반에서 어떤 여학생이 학생들을 성추행 한다고 제보가 들어왔다.

사실을 알아보니 한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들 가슴을 만지고 남학생들 엉덩기도 만졌다는 것이다. 피해 학생들 얘기를 들으니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여러 번 반복되니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었다.

그 내용을 적게하고 가해학생을 만났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으니 재미있어서라 한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니까 피해 학생들이 기분 나빴을 것 같다고 하며 왜 직접 싫다고 얘기하지 않았는지 원망을 한다.(어른들 변명과 같음에 답답함을 느끼고)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여러 피해자의 기분을 전달하며 반성하게 했다.

한동안 그 반에서는 성추행 얘기가 없더니 이번에는 그 학생이 다른 반에 가서 똑같은 행동을 하다가 그 반 담임선생님께 걸려 대자보에 사과문을 쓰는 일도 있었다.

성교육수업 17시간을 받고 학생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학생

들이 어두운 성을 알기 전에 밝고 아름다운 성을 먼저 바르게 알려주어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어 삶의 질을 높이게 되었으면 한다.

학교에서는 양성평등을 배운다. 중학교 교실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배우고 출석번호도 1학년은 앞번호가 여자, 뒤 번호는 남자, 2학년은 앞 번호는 남자, 뒤 번호는 여자 이런 식으로 한해 걸러 출석번호도 바뀌고 있다. 가정에서도 딸, 아들 구별하지 말고 인간으로 사랑 받고 존중받는다면 우리 학생들은 더욱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존중하여 다른 이도 존중하며 살아갈 것이다.

♥ 우리가 지켜야 할 일 ♥

1. 자율적으로 - 발표도, 뒷정리도
2. 서로 신뢰 할 수 있도록...
3. 마음을 열고...
4. 남을 비난하는 말은 삼가. - 욕이나 싫은 소리...
5. 가짐 말 안 할 수 있는 권리 존중.
6. 바보 같은 질문이란 없다.
7. 서로 어떤 선입견도 갖지 말자.